

광주광역시

고재유 시장



‘인터넷 광주’, ‘윈도우 광주’, ‘광주·전남테크노마트’ 등 인터넷을 통한 시 정보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화를 위해 직원 PC보급률 확대와 함께 전자결재 비율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광주시의 정보화 의지를 고재유 시장을 통해 직접 들어보았다. <편집자>

Q 민선2기 시정의 출범과 함께 시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정분야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시장님의 자체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A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는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속에 출범하여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지난 1년 동안 대내외적인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기쁨을 맞볼 여유조차 없이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정 전반을 직접 챙기며 뛰어들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노력 덕분에인지 4억9900만불의 해외투자 유치와 기아자동차의 경영정상화, 한남투자증권의 영업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등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회생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일 이외에도 행정서비스현장 제정이나 규제개혁 등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신

경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과 제2시립공원묘지조성 등 필수 공익시설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개편하고, 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간 교류와 제2의 건국운동 등 국민통합과 행정개혁 분야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괄찬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민선2기 목표인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위한 기본틀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자치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Q 빛고를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예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통하여 예향으로서의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장님의 평소 지론과 앞으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광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의항이요, 예항이라 불려 왔습니다. 이것은 광주가 타지역에 비해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들의 문화수준 또한 높으며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우리 광주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예적인 소양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광주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중이거나 구상하고 있는 주요 문화예술 정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적인 문화행사인 「제3회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우리 광주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미술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외공원문화벨트 비엔날레 전시관을 건립하고,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미술관도 2000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예항의 명성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사시대 우리나라 최대의 복합농경 생활터전이었던 신창동 유적지를 오는 2004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하여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 무등산 자락에 도예공방촌인 「광주요」를 조성하여 선조들의 문화상을 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의 명산이요 영산인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어등산과 황룡강 일대를 세계적인 역사관광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광주비엔날레와 5·18묘역을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문화와 예술분야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식정보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로서는 우리 고장의 예술적 특성을 어떻게 첨단과학에 접목시켜 상품화시킬 것인가가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광주시는 내년 1월쯤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남도문화가상체험관'의 인터넷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광주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상공간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영상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문화산업 육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센터' 건립방안도 모색하는 등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진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광주광역시는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광주, 원도우 광주 등 인터넷으로 광주와 관련된 모든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시 정보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에 대한 광주시의 또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A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라디오가 만들어진 후 라디오 이용자가 5000만명을 돌파하기까지 38년이 걸렸고 텔레비전은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자가 5000만명을 넘기까지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97년도에 설립한 「광주광역정보센터」를 통해 도시계획, 민원 등 행정정보와 재활용품교환, 중소기업 관련정보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처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는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홈페이지 구축, '1가정 1PC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소프트웨어진흥구역 확대, 멀티미디어 연구개발센터 설립도 추진하여 지역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나가겠습니다.

Q 전자결재율을 높이는 등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행정정보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앞으로 행정정보화로 인한 시정의 변화는 어떠한지라고 보십니까?

A 우리 광주시는 오는 2001년까지 전자시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청내 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서간 전자문서를 유통시키기 시작했으며, 금년 8월까지 산하 사업소와 자치 구간에 광역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어 전 기관 간에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청은 전자결재 등이 확대되어 전자문서 유통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직원들에 대한 인터넷 전자우편 ID발급도 완료되어 정보통신을 활용한 행정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50여종의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민서비스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도 2001

년까지는 1인 1대씩 보급하여 시 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현재 우리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앞으로는 중이 필요없는 명실상부한 전자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Q 광주광역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범구축 제1단계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잘 되어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텐데 어떠신가요?

A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지역정보화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우리 시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아산만 평택지구 내에 민간통신 사업자를 참여시켜 추진하는 정부주관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 사업인 기초자료조사와 기본설계는 지난 95년에 착수하여 97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통신사업자를 유치하여 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2단계 사업은 현재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에 착수할 무렵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Q Y2K 문제 해결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 Y2K 문제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Y2K 대응노력과 해결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잘 아시는 바와 같이 Y2K 문제는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범국가적인 현안 과제입니다. 우리 광주시도 Y2K 문제해결을 위해 4개반 33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 산하기관의 Y2K 점검을 지난 8월까지 100% 끝마쳤습니다.

또한 Y2K 문제의 자체해결능력이 부족한 관내 기업체와 병원, 개인보유 PC 등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 4월부터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Y2K 문제의 안전한 해결을 위해 지원을 계속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Q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의 미래상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광주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요?

A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8월에 21세기를 앞두고 광주가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발전



대담자 : 김병기 전남대 자연과학대 교수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라남도 지역정보화 추진위원과 광주광역시 정보화 추진위원, 광주 SW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로 활동중이다. 김 교수는 정보처리학회 발전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의 미래상과 개발구상을 담은「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으로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제중심도시, 정보화를 선도하는 첨단정보도시,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예술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인본민주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광주가 인구 200만의 세계 100대 도시의 하나로 국내외에 그 위상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발전계획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